

냉전형성기(1945~1950) 프랑코주의 언론에 활용된 한국의 이미지

최해성

단독/서울대학교

Choe, Hea-Sung(2008), El análisis de las imágenes nacionales de Corea reflejadas en la prensa española en los primeros años de la Guerra Fría (1945-1950),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167-196.

Este artículo tiene como objetivo principal analizar las imágenes nacionales de Corea que se han visto en la prensa española en los primeros años de la Guerra Fría (1945-1950). Desde los comienzos de 1945, ante la creciente crítica internacional, el general Franco centró su defensa del régimen en el anticomunismo; creyendo en que algún día cristalizaría el antagonismo entre los bloques capitalista y comunista y, entonces, las ventajas geoestratégicas de España le servirían para entrar en el bloque occidental. En esta coyuntura, la Península Coreana, en donde se enfrentaron de manera directa las dos grandes superpotencias, EE.UU. y la URSS, podía suministrar materiales funcionales a la propaganda anticomunista del régimen franquista.

En el período entre 1945 - 1947, caracterizado por el rechazo internacional del régimen franquista impulsado por los países del bloque soviético en el terreno de la ONU, la prensa española enfocaba Corea en general como una víctima más de la expansión soviética con el propósito de demostrar el peligro de la conspiración y avance del comunismo. Mientras, si analizamos los artículos relacionados con Corea entre 1948-1950, podemos subrayar un aspecto aparentemente contradictorio: una crítica hacia la política de Estados Unidos. Según la prensa española, EE.UU. no comprende la urgencia de favorecer ayuda económico-militar a aquellos países anticomunistas, como España. Según esta óptica franquista, esa urgencia también se halla presente en Corea, ya que, debido a la actitud poco responsable de EE.UU., se manifiesta de manera patente un desequilibrio militar entre el Norte y el Sur. En este ambiente, no es muy difícil encontrar en la prensa española de aquellos años artículos que expresan cierta solidaridad y compasión hacia Corea.

[imágenes nacionales/ franquismo/ propaganda/ anticomunismo/ prensa;
국가이미지/ 프랑코주의/ 선전/ 반공주의/ 언론]

I. 서론

프랑코는 스페인내전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지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고 40년에 걸친 1인 독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 장기집권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탄하게 지속되었을 리는 없다. 스페인의 까우디요(Caudillo)가 타고 넘어야 했던 여러 차례의 고비 중에서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몰아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유엔의 외교단절 결의안은 정권의 존망이 걸린 최대의 위기였다¹⁾. 연합국 입장에서는 파시즘과의 전쟁으로 정의내린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도 이들의 지원으로 성립된 독재정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스페인에 보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압력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냉철하고 뛰어난 현실감각을 지닌 프랑코는 이 위기의 해법을 반공주의에서 찾는다. 나라 안팎에서 맹렬히 일던 민주화의 요구도 갈수록 심화되는 동서진영의 분열과 냉전의 소용돌이에 파묻히게 되리라 예견하고 반공 프로파간다에 힘을 쏟는다(J. M. Armero, 1978: 44-52 참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적중하여 프랑코는 위기를 극복하고 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 있는 토대를 굳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프랑코주의자들이 사용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는 크게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프랑코독재에 대한 스페인 내부로부터의 비판을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불세비즘’과 ‘프리메이슨’ 세력들의 선동행위로 호도하는 것이었다.²⁾ 반면, 후자는 국제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내전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경험을 지닌 프랑코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 세계에 경종을 울린 반공의 선구자이며, 서구진영도 언젠가는 그 노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1) 막스 갈로는(Max Gallo, 1973: 153-159) 이 시기를 프랑코정권의 ‘암흑의 밤’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2) 이 시기에 프랑코는 스스로 ‘Jakim Boor’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Arriba*紙에 ‘프리메이슨’을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후에 이 글들은 한 권의 책으로 모아져 출판되었다. J. Boor, 1952. *Masoneria*. Madrid: Semana Gráfica.

그리고 이러한 반공선전을 뒷받침할만한 사례들을 국제사회에서 찾고 있었는데,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던 아시아, 특히 그 중에서도 미·소 양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대립해 있던 한반도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었다. 더욱이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반도 위치는 유럽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유사점까지 지니고 있어 스페인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실, 20세기 초 러일전쟁과 헤이그특사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페인 언론에 종종 등장하던 한국 관련기사는 일제강점기동안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스페인의 언론은 또다시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45년, 특히 1947년 말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스페인 언론에 갑자기 증가한 한국 관련기사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과 배경, 기사들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냉전형성기중 프랑코주의 언론에 투영된 한국상(韓國象)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프랑코주의자들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한국인들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분단현실이 스페인 독재정권의 존속과 연장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스페인 언론의 한국 이미지 활용 배경

1. 국제관계에서 이미지와 인식의 역할

우리 개개의 인간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현실세계를 마주할 때,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며, 이를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류,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Schafer, 1997: 814). 이러한 현상은 국제정치에서도 일어나는데, 개개인은 의식적이던 무의적이던, 그리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던 내재적이던, 국제관계에 대해 마음에 연상되는 이미지, 즉 심상

(mental image)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세계에서 어떤 부분은 과장시키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면서 ‘현실’(reality)을 단순화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예측에 의해 정의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면화시키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Kegley and Wittkopf, 1999: 6).

이런 이유로 인해,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이미지이론의 선구자로 불리는 볼딩(Boulding)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이미지, 특히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상황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황의 ‘이미지’에 대응하여 정책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oulding, 1969: 423).³⁾

원래 ‘이미지’란 용어는 1950년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한 개인의 공적인 삶에 나타난, 또는 어떤 제품, 정당 또는 국가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그것의 소유자가 홍보활동 등을 통해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국가이미지’라고 쓰일 때에는 어느 정도 굳어진 선입견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며, 어느 한 국가의 이미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Kunczik, 1997: 39).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평가되어지는 국가와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측이 그렇게 하여도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며,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계속된다.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스페인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중에도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굳어진 측면, 즉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perception)의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계해 본다면, 결국 인간은 일반적

3) 이미지와 인식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정치학의 한 분과인 외교정책이론에서 정책결정과정
에 관한 연구는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접목하면서 발전해 왔다(Rosati, 1995: 49-70).

인 세상에 대하여 또는 구체적인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이미지나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오랜 시간에 걸쳐 나름대로 구축하게 되며, 이들은 일단 형성된 뒤에는 ‘인지의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면 그것을 기존의 이미지 및 신념과 일치시키려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선별적 인식’(selective perception)을 통해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며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려는 경향을 보인다(Holsti, 1970: 123-157; 젠슨, 1998: 61). 이것은 스페인이 지닌 한국의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프랑코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스페인 언론에 나타난 한국 관련기사들을 살펴보면, 당시 스페인의 집권체제가 한국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프랑코정권의 국제적 고립

국제 사회에서 프랑코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개최된 포츠담회담에서였다(Moradiellos, 2001: 74). 한국의 신탁통치문제가 거론된 이 회담에서 스페인문제도 뜨거운 주제의 하나였다. 연합국 내의 반(反)프랑코 여론을 감안할 때 서구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스탈린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와 프랑코정권과의 외교 단절,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을 주장한다(Swain, 1999: 246-250). 비록 영국의 소극적 태도로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회담의 최종 선언문에는 “추축국의 지원에 의해 성립된 현 스페인 정부는 그러한 기원으로 인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혔다.⁴⁾ 장차 ‘스페인문제’(La cuestión española)라고 불리게 되는

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vol. II. Washington(1960: 1510); J. Lleona y F. M^a Castiella. 1978. *España y ONU, I (1945-1946)*. La “cuestión española”, Madrid: CSIC. 37. 하지만 이 회담은 소련과 영, 미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전후 유엔에서 스페인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프랑코정권의 외교적 고립은 이때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프랑코정권에 대한 부정적 국제여론은 1946년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연초 미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와 추축국”(The Spanish Government and the Axis)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하여 세계대전 중 프랑코정권이 추축국에 협력한 내용을 공개하였고,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 영국과 함께 프랑코정권을 비난하는 3자 성명을 발표한다(Dunthorn, 2000: 85-89). 1946년 말 유엔에서 스페인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프랑코정권에 대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 유엔 총회는 국제연합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의 회원으로서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정부를 제의시킬 것,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마드리드에 파견된 그들의 대사나 전권대사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권고하였다(Lleonart y Castiella, 1978: 386-388).

하지만 1947년에 들어서면서 동서진영의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의 안보정책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그 해 연말의 유엔총회에서 다시 논의된 ‘스페인문제’는 냉전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재에 적극적인 동구권과 미온적인 서구권의 논쟁으로 진통을 겪게 된다. 프랑코정권에 대한 제재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안은 미국의 제안으로 단락별로 표결에 부쳐졌는데, 제재를 담고 있는 중심단락이 부결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Lleonart, 1983: 280-312; *FRUS* 1947, vol. III: 1095). 이것은 프랑코정권에게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어두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뜻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외교적 고립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이 글의 분석대상 기간(1945~1950)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945년에서 1947년 유엔총회까지의 시기로 프랑코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며, 둘째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으로 비록 외교적 고립에서는 벗어났으나 정권의 연장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경제·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진영으로 편입하려 노력했던 시기이다. 다음 두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프랑코정권이 설정했던 외교

적 당면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개했던 프로파간다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부각되었는지 스페인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프랑코정권의 방어적 외교 전략: 반공주의 선전 속의 한반도 (1945~1947)

1945~47년 시기에 프랑코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방어와 외교적 고립의 탈피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태생적 한계와 권위주의적 체제가 비판을 받게 되자 프랑코는 자신의 방어 전략을 절대적인 반공주의에서 찾았다(Montero Díaz, 1998: 675). 그의 시각에 따르면, 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진 서구 민주국가들과 소련의 동맹이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괴한 돌연변이’와 같은 것이었다(Suárez Fernández, 1984: 19). 따라서 동·서 진영의 대립이 본격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 고무되어 일어나는 국내의 반정부적 움직임들을 초기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 프랑코주의자들의 주된 전략이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로는 프랑코의 최측근으로 나중에 수상 자리에서 오르는 카레로 블랑코의 보고서가 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처방은 다른 아닌, 명령, 단결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다. [...] 어떤 전복음모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경찰 활동, 만약 발생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력한 진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에 악을 고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철저하게 응징하는 쪽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Tusell, 1984: 99-100).

이 시기에 프랑코정권이 채택한 대응전략과 선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비판이 주로 파시스트국가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은 중립을 지켰고 연합국의 작전에 협력하였

다는 점을 부각시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으로 성립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것이었다.⁵⁾ 둘째로 파시스트 아류 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자신의 권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화를 피하고자 하였다.⁶⁾ 셋째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국제공산주의와 프리메이슨의 음모에 의해 발생한 부당한 압력으로 돌리고 프랑코정권이야말로 스페인내전을 통해 공산주의와 싸웠던 반공의 보루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세 번째의 선전을 위해 당시 스페인 언론들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비판기사를 자주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반도의 상황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한국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의 제목을 달고 있거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지도를 동반하고 있어 빠르게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가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길지 않은 소식 위주의 단신들이 많지만, 때때로 깊이 있는 분석의 글들도 나타나는데, 주제별로 기사들을 분류한다면, 크게 소련 공산주의의 피해자로서의 한반도,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목표였던 불운한 역사를 지닌 한반도, 해방 이후 미·소의 이중 점령 하에 있는 어려운 현실의 한반도 등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1. 소비에트의 팽창에 노출된 한반도

공산주의 팽창의 희생자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종결

- 5)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이 열리던 시점에 프랑코가 행한 연설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이 스페인을 훌륭하게 통치하여 세계대전 중 스페인은 중립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으로 가득찬 자신의 체제와 파괴와 혼란을 가져오는 공산주의 혁명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묻고 있다. “Trascendental discurso del Caudillo en el Consejo Nacional.” *Arriba*(18 de julio de 1945): 1-18.
- 6) 실제로 1945년 7월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스페인인들을 위한 기본법”(Fuero de los Españoles)에는 스페인을 가톨릭 군주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외형의 모습만을 변화시켜 군사독재라는 이미지를 지우려는 의도였으므로 왕위는 계속 공석인 채로 남아 있었다. 이 내용은 자신의 후계자를 과거의 왕가에서 선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왕위선출까지도 프랑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직전 소련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시기부터 나타난다. 프랑코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스페인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전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며, 스페인을 공격하고 있는 소비에트의 음모에 한반도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사들은 고발적인 성격을 지닌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러시아 군대, 여러 지점에서 만주 국경을 넘다 (ABC. 45년 8월 10일;
La Vanguardia Española [이하 VE]. 8월 10일),
 러시아인들 한국을 침략하다 (Arriba. 45년 8월 11일),
 러시아 병력 만주의 국경을 넘다 [...] 첫 목표는 한국”(Ya. 8월 10
 일),
 한국에서 러시아의 신속한 전진 (Arriba. 8월 25일),
 항공으로 수송된 러시아 병력 한국에 착륙하다 (ABC. 8월 25일),
 소련의 자동화된 병력들, 만주국 점령 후,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한
 반도로 빠르게 진격. 바이칼횡단 러시아군, 한국의 최남단인 부산항
 을 향하다(Arriba. 8월 25일),
 태평양지역의 상황 매우 위험한 측면을 보여준다 —트루먼 언급
 (ABC. 8월 28일).

원래 소련의 대일 참전은 1943년 테헤란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5년 알타회담에서 구체화되었고, 포츠담에서 재확인된 내용으로 스페인 언론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⁷⁾ 하지만, 실제로 소련군의 참전이 현실로 나타나자 이를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미군의 한반도 진출을 다룬 기사들과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7) 예를 들면, ABC지는 1945년 8월 10일자 기사에서, 포츠담회담 중 처칠과 스탈린은 “일본에 대한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최후통첩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고 합의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첫 목표는 한국의 점령”이 될 것이라고 한 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LOS RUSOS INVADEN COREA

Han penetrado también en la parte meridional de la isla de Sakhalin

Setenta "superfortalezas volantes" atacan con bombas de grueso calibre el arsenal de Tokio

LONDRES 10.—Radio Tokio difundió un comunicado del Cuartel General japonés, que dice: «El Ejército ruso ha invadido Corea, cruzando la frontera por varios puntos situados cerca de Kiyu, en la tarde de ayer. En el ataque efectuado ayer contra objetivos al sur que ha sido de gran importancia, se elevaron voladores a una altura de seis kilómetros, pudiéndose distinguir algunos de los intentos de invasión. Fueron destruidos ciertos aviones rusos.»

Según se informa en el comunicado, los aviones rusos atacaron el arsenal de Tokio con bombas de grueso calibre. Los aviones rusos fueron destruidos por la artillería de la zona. Los aviones rusos fueron destruidos por la artillería de la zona. Los aviones rusos fueron destruidos por la artillería de la zona.

Mientras se tramita la rendición de Corea, se levanta la guerra aérea de Sakhalin y la guerra aérea de Sakhalin. Los aviones rusos atacaron el arsenal de Tokio con bombas de grueso calibre. Los aviones rusos fueron destruidos por la artillería de la zona. Los aviones rusos fueron destruidos por la artillería de la zona.



자료 1: 한국에 대한 소련의 '침략'을 보도한 신문들.
좌측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Arriba. 45년 8월 11일; ABC. 8월 12일; ABC. 8월 25일.

오늘날 소비에트 군에 의해 침략당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 1943년 카이로에 모인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하여 독립 선언을 하자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었다(Arriba. 45년 8월 16일).

러시아군은 만주국과 한국의 영토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전 지역으로 전진하고 있다. [...] 어쨌든 러시아군대는 만주국과 한국의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ABC.

45년 8월 12일).

이렇듯 소련군의 움직임을 다분히 공격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소련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강대국 외교관들이 마련한 평화안을 계속해서 모두 틀어 놓는 주역”(ABC. 45년 9월 5일)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미군의 한반도 상륙에 대해서는, 루즈벨트가 카이로에서 서명한 약속을 완전히 저버릴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야만적 식민 상태에 시달리다 더 열악한 상태로 빠질지도 모르는 저 6백만 한국인들에 대한 약간의 인정”(VE. 45년 8월 28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 한국의 역사, 지정학적 운명

스페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었던 일반 독자들을 위해 한국의 역사나 정치 상황을 소개하는 글도 종종 실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의 대부분은 19세기말부터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침략’ 의도도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동인을 찾고 있다.

커다란 경제적인 잠재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면이라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충돌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두 세력은 다름 아닌 동쪽으로 향하는 짜르 러시아와 서쪽으로 향하는 군국주의 일본이다(Mundo. año VI. núm. 282, 45년 9월 30일: 184).

러시아가 그 영토를 합병하려 시도하자 일본은 주저하지 않고 차르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의 승리는 모스크바의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도쿄는 연속적인 조약들을 통해 그 영토의 권리를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갔고, 1910년 마침내 보호조약을 폐지하고 그 나라를 손쉽게 합병하였다. [...] 물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지만, 오늘날 소련의 눈은 또 다시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고, 미국은 이 반

도가 다른 대국에 복속되길 바라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와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국의 영토에 대해 생각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ABC. 45년 8월 30일).

스페인 언론이 한국을 소개할 때에는 대부분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시련과 독립운동의 저항 정신을 부각시키고, 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운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일본동화작업(*niponización*) 과정은 한국 민중들의 주권과 독립 정신을 옥죄는 일련의 법률, 명령, 규칙들에 분명히 나타난다. [...] 농산물과 지하자원은 모두 점령국에게 이익이 되었다. [...] 한국은 말 그대로 가장 철저하고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식민지로 전략하였다(*Mundo*. núm. 282. 45년 9월 30일: 184-18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립을 향한 비밀스런 움직임이 계속 존재해 왔고, 그것들은 다양한 싹을 틔웠다. 가장 먼저 꺾을 수 있는 것은 1919년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운동이 일어난 후 파리 회담에 제출된 독립 청원서가 국제적인 영향을 미친 일이다(VE. 45년 8월 28일).

한편, 이승만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도 눈길을 끈다. 해방 직후 아직 미국에서 환국하기 전 그가 했던 발언들이 소개되었다.

한국은 지금 연합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현재 이 수도[워싱턴]에서 그 정부의 대표로 활동하는 이승만은 [...] 한국에 형식적인 독립만이 주어질 경우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은 없지만 한국을 지배하려는 소련의 어떤 종류의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Arriba*. 45년 8월 25일).

스페인 언론은 분명 그의 반공주의적 성향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스페인 언론들은 미국이 소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지 못하면

한국의 운명은 혹독했던 일본 지배하의 과거에 비해 크게 행복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 이중 점령 하의 한국 현실

한국의 당면 현실에 대한 기사 중에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임시로 정해졌던 38선이 왕래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변했음을 다룬 내용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 중에는 스페인인들 특유의 상상력을 더하여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위도 37.999도에서 38.001도로 건너가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 한국인들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일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패배 이후 소련군과 미국군의 점령지를 구분하는 바로 그 38도선이 한반도의 삶과 운명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령이 되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쪽에는 극동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양 측의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위도선은 한국인들이 사는 국토의 표면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기반까지도 나누고 있다(Arriba. 45년 11월 8일).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외상회담에서 한국의 미래가 논의되었다. 이 시기는 프랑코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시점으로 이 회담에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⁸⁾ 하지만 스페인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자 매우 안도하면서 “공식 확인 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스페인, 그리스, 트리폴리타니아 문제”라고 특별하고 회담의 결정 내용 전문을 빠짐없이 보도하는 열의를 보였다. 물론 이 회담 전문에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 사항도 들어 있다. “한국은 연합국들이 관리하는 임시

8) 프랑코정권의 교육성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판, 특히 프랑스정부의 반 프랑코적 움직임이 강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ABC. 1945년 12월 29일; Arriba. 1945년 12월 29일.

정부에 의해 통치될 터인데, 이 정부는 독립을 지향해 갈 것”⁹⁾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946년이 되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강경자세가 이어지고 UN에서 스페인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스페인 언론들은 세계대전 중 프랑코정권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에 주력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진다.

El porvenir de Corea

Según informaciones procedentes de San Francisco, Radio Tokio ha declarado que los japoneses residentes en el Norte de Corea están expuestos, como sus bienes, a un peligro inminente, y ha rogado a las fuerzas aliadas, concretamente a las norteamericanas, que tengan en cuenta las condiciones reinantes en el país antes de proceder al desarme de las tropas niponas, pues incluso existe el temor —agrega Radio Tokio— de que tan deplorable estado de cosas se extienda, de no encontrarse un remedio eficaz, a toda la península, con lo que se crearía una situación muy difícil para las autoridades japonesas encargadas de mantener el orden.

No es extraño que los coreanos exterioricen en los momentos actuales su rencor contra los representantes de la nación que ha impuesto su dominio en la península desde hace cuarenta años.

Hasta 1878, Corea vivió cerrada a los extranjeros, como lo estuvo el Japón hasta 1853. Políticamente constituía un reino tributario del Celeste Imperio, pero, en virtud del Tratado de Shimonoseki (1895), le fue concedida una amplia autonomía. Nueve años después, Rusia intentó anexionarse el territorio y el Japón, que ya disponía de un Ejército y una Marina organizados a la moderna, no vaciló

en declarar la guerra al Imperio de los Zares. Las victorias niponas neutralizaron los propósitos moscovitas, y Tokio, luego de transformar a Corea en protectorado (Tratado de Portsmouth, de 1905), consiguió aumentar, mediante sucesivas convenciones, sus derechos sobre el territorio, hasta que al fin, en 1910, suprimió el protectorado y se anexionó lisa y llanamente el país, que mide 218.000 kilómetros cuadrados y está habitado por más de veinte millones de almas.

Desde aquella última fecha, la ocupación nipona impulsó, es indudable, la vida económica de Corea, si bien ello benefició sobre todo al Japón, que reforzó, de paso, considerablemente su posición estratégica en el Extremo Oriente.

Hoy, las miradas rusas vuelven a fijarse, de nuevo, en la península coreana, que, desde luego, será cenarada del Japón, pero que los Estados Unidos no quieren ver sometida a otra potencia. Lo probable es que se constituya un Estado independiente bajo la dirección y vigilancia de las naciones aliadas. En las recientes alusiones de Mr. Truman a los problemas del Pacífico, “en muchos aspectos peligrosos”, según se ha declarado, el presidente norteamericano no habrá dudado de pensar en el porvenir de Corea y en su significación como territorio de importancia militar excepcional.

자료 2: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과거의 역사를 소개한 기사(ABC. 45년 8월 30일)

하지만 1947년 유엔에서 스페인문제와 함께 한국의 문제가 다뤄지자 언론의 관심이 다시 고조된다. 특히 이 무렵부터 외교전문주간지 *Mundo*에는 한국에 관련한 기획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금까지의 신문기사에는 단편적인 소식 위주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기 이후 *Mundo*誌에 실린 기사들은 한국에 관한 다양한 심층적 분석들을 곁들이고 있어, 프랑코정권의 프로파간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모스크바 삼상

9) Arriba. 1945년 12월 28일; *Mundo*. núm. 296(6 de enero de 1946). 12-13.

10) 외교와 경제의 전문 주간지(Revista semanal de política exterior y economía)를 표방한 ‘*Mundo*誌’는 프랑코정권의 외교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편집장 비센테 가예고(Vicente Gallego)는 1939년에 세워진 통신사 ‘EFE’를 이끌던 전형적인 프

회담의 결의에 따라 성립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이 잡지는 ‘한국의 미래는 미국-소련 간의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제하로 세 페이지에 걸쳐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동 위원회의 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내부 실정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남한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조만식, 박헌영 등 당시 남북한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거의 망라하면서 분단 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유엔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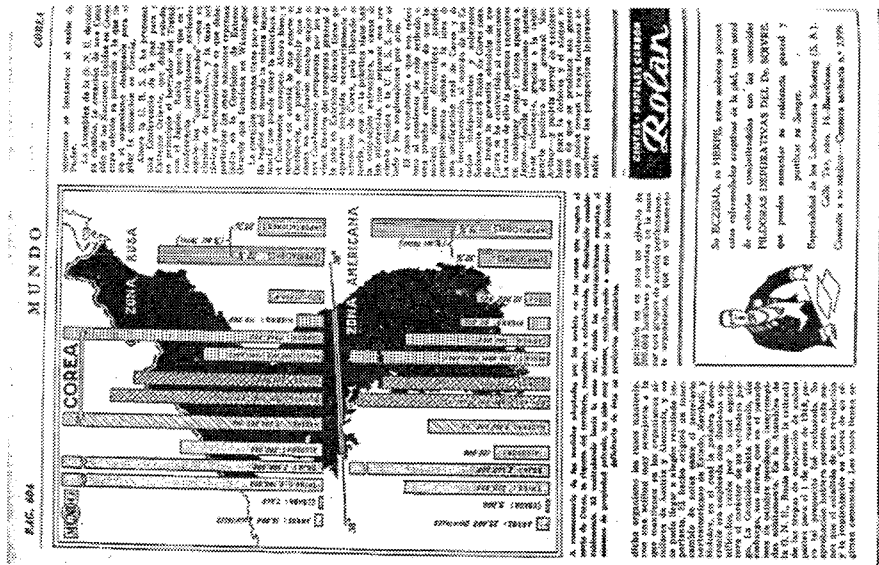
한국인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열망이 민주적인 유엔에는 도달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 기구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고 있으면, 밀실외교와 비밀통로에서 문제를 해결(또는 강압)하여 비판받았던 시절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 한국인들에게는 기나긴 민주주의 치료법을 받아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조국이 두 조각으로 찢겨져 서로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지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Mundo*. núm. 390. 47년 10월 26일: 276-278).

이 글에 앞서 *Mundo*誌는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국제상황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쟁 기간 중 체결된 비밀협정에 원인이 있으며 “루즈벨트가 너무나 경솔하게 문제들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대가는 결국 유럽과 전 세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치러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Mundo*. núm. 373. 47년 6월 29일: 276-278). 여기에는 세계대전 중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프랑코정권의 외교적 승리를 상징하는 1947년 유엔 총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인문제가 다른 나라들에게 소련의 야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한국과 발칸반도 국가들의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

랑코주의자였고, 편집위원인 루이스 까레로 블랑코, 호세 마리아 코르데로(J. M. Cordero Torres), 페르난도 알마그로, 라몬 가리가 등은 대부분 당대의 대표적 정치학자들로서 프랑코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Mundo*誌에 실린 기사들은 프랑코정권 수뇌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결정한 임시 한국위원단(UNCOK)이 한국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소련의 계획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또한 “유엔은 기다리다 지친 한국 사람들에게 신탁통치라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신속한 독립을 약속하였다. [...] 하지만 소련 점령지역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Mundo. núm. 394. 47년 11월 23일: 276-278)”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렇듯 구체적이고 매우 분석적인 이 시기의 기사들을 통해서 프랑코정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3: 미소에 의해 점령되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 (Mundo. 47년 12월 28일: 602-604)

MUNDO

COMPA

COMPA

MUNDO

7.10.1952

LA COREA DEL NORTE ESTA SIENDO SOVETIZADA Y YA EN LA ACTUALIDAD PARECE UNA REPUBLICA SOVIETICA

LA ORGANIZACION POLITICA Y ECONOMICA SE LLEVA A EFECTO CONFORME CON PATRONES RUSOS DE ESTA SUERTE, CUANDO HAYAN DE RETIRARSE LAS FUERZAS DE OCUPACION, EL GOBIERNO ESTARA EN MANOS DE LOS QUE EL KREMLIN HAYA DESIGNADO PARA EJERCERLO INCLUSO SE HA CONSTITUIDO UNA MILICIA DE 300.000 HOMBRES, CON VESTIDOS AL ASALTO DEL PODER

Los datos que se han ido reuniendo en los últimos meses, por los propios testigos que han estado en Corea, confirman que la situación política y económica en el Norte de Corea es cada vez más similar a la de la Unión Soviética. En efecto, se ha observado que la estructura política y económica se va desarrollando conforme a los patrones rusos. En particular, se ha notado que la milicia que se está formando en el Norte de Corea, con un total de 300.000 hombres, está siendo equipada y entrenada de acuerdo con los estándares soviéticos. Esto sugiere que el gobierno que se va a establecer en el Norte de Corea, una vez que las fuerzas de ocupación se retiren, será un gobierno típicamente soviético.

En el aspecto político, se ha observado que la estructura del gobierno en el Norte de Corea se está desarrollando de acuerdo con los patrones soviéticos. En particular, se ha notado que la milicia que se está formando en el Norte de Corea, con un total de 300.000 hombres, está siendo equipada y entrenada de acuerdo con los estándares soviéticos. Esto sugiere que el gobierno que se va a establecer en el Norte de Corea, una vez que las fuerzas de ocupación se retiren, será un gobierno típicamente soviético.

QUIMICA

Para mejorar la calidad de la producción, se ha observado que la estructura del gobierno en el Norte de Corea se está desarrollando de acuerdo con los patrones soviéticos. En particular, se ha notado que la milicia que se está formando en el Norte de Corea, con un total de 300.000 hombres, está siendo equipada y entrenada de acuerdo con los estándares soviéticos. Esto sugiere que el gobierno que se va a establecer en el Norte de Corea, una vez que las fuerzas de ocupación se retiren, será un gobierno típicamente soviét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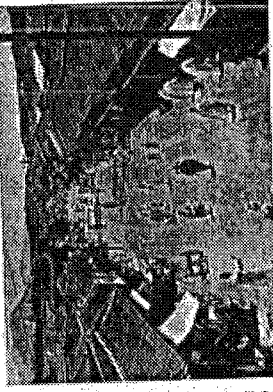


Una columna de soldados, en el Norte de Corea, en el momento de su movilización. (Foto de la prensa soviét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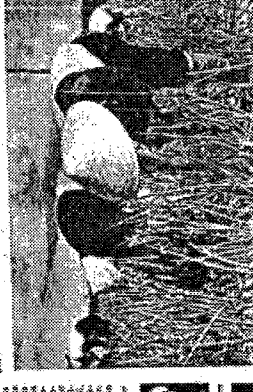
En el aspecto económico, se ha observado que la estructura del gobierno en el Norte de Corea se está desarrollando de acuerdo con los patrones soviéticos. En particular, se ha notado que la milicia que se está formando en el Norte de Corea, con un total de 300.000 hombres, está siendo equipada y entrenada de acuerdo con los estándares soviéticos. Esto sugiere que el gobierno que se va a establecer en el Norte de Corea, una vez que las fuerzas de ocupación se retiren, será un gobierno típicamente soviético.

La Corea, comunista.

En el 1.º de diciembre de 1949, cuando el ejército de Corea del Norte, comandado por Kim Il-sung, se retiró de la zona sur de Corea, se observó que la estructura del gobierno en el Norte de Corea se estaba desarrollando de acuerdo con los patrones soviéticos. En particular, se ha notado que la milicia que se está formando en el Norte de Corea, con un total de 300.000 hombres, está siendo equipada y entrenada de acuerdo con los estándares soviéticos. Esto sugiere que el gobierno que se va a establecer en el Norte de Corea, una vez que las fuerzas de ocupación se retiren, será un gobierno típicamente soviético.



El ejército de Corea del Norte, en el momento de su movilización. (Foto de la prensa soviética).



Una columna de soldados, en el Norte de Corea, en el momento de su movilización. (Foto de la prensa soviética).

THE FIVE
BRIGADES
CONTRA EL MAURO
SANTA TERESA

GOMBRAG
SANTA TERESA

IV. 프랑코정권의 공격적 외교전략:

미국 지향 정책 속의 한반도(1948~50)

프랑코정권은 1947년 말 유엔총회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의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경제를 회복하고 동서분쟁의 냉전체제에서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이었다.¹¹⁾ 때마침 미국이 계획한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참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요원해지자, 프랑코는 전략을 바꿔 직접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Martínez Lillo, 2000: 335-337). 자신의 정권에 부정적 시각을 지닌 트루먼 행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비그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코는 투철한 프랑코주의자 레케리카를 미국에 파견하여 이른바 ‘스페니쉬 로비’(Spanish Lobby)를 지휘하게 한다. 이 ‘로비그룹’에는 가톨릭, 반공주의자, 군사전문가, 트루먼정부에 대항하는 공화당 의원, 그리고 스페인에 이권이 있는 기업가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차관을 얻는데 성공한다(Viñas, 2003: 59-60; Marquina Barrio, 1986: 269-308).

한편 국제정세의 흐름도 더욱 프랑코정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유명한 ‘봉쇄정책’의 입안자 조지 케난은 미 국무부에 스페인과의 신속한 관계정상화를 권고한다(*FRUS*, 1947. vol. III: 1091-1095). 나아가 미국의 안보기관에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유럽의 방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스페인과 시급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한다(Marquina Barrio, 1986: 221-229; 298-309). 하지만 트루먼과

11) 프랑코는 내전 이후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1959년까지 경제자립정책(*autarquía económica*)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밀과 석유 등 원자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특히 1945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배척이 심해졌을 때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의 차관과 밀 수출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시기의 스페인 경제에 대해서는 J. A. Biescas y M. Tuñón de Lara(1994: 23-27)를 참조.

국무부는 프랑코정권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각들이 지나치게 군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스페인 정부가 민주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FRUS, 1950. vol. III: 1549-1555).

이렇듯 프랑코정권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서도 국무부와 국방부의 의견차이로 미국과의 협상 체결이 난항을 거듭하자 급기야 프랑코정권은 트루먼 행정부의 대스페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다. 특히 스페인 언론은 미국 정부가 스페인과 같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반공국가에게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와 같은 프랑코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남북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보내지 않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이것은 이 시기의 한국 관련기사들 속에 소련의 야심에 의해 희생된 한반도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미국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도 자주 부각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비례하여, 남한에 대한 이념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동정심을 표하는 기사들도 점차 늘어난다.¹²⁾

1. 한국의 계속된 이미지, 공산주의 팽창의 희생자

소련의 음모에 의한 희생자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냉전이 본격화되는 1947년 이후부터 더욱 단호한 어조로 설명된다. 이 시기의 스페인 언론은, 한 민족의 미래를 전혀 염려하지 않고 단지 파괴하거나 정복하려드는 것이 소비에트들의 국제적 음모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그 일례로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점령한 38도선 이북지역의 현상을 들고 있다. 경제 소비에트화가 진

12)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양국의 이념적 동질성은 1950년 3월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한서외교관계 수립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 타이완, 영국, 프랑스, 필리핀에 이어 스페인은 여섯 번째로 빠른 수교국이 되지만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행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혼란, 그런 와중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움직임에 대해 거론하면서, “[한반도 북쪽의] 경제적인 혼란을 볼 때 소비에트들은, 한국이 실제적 통일을 이루어 독립 주권국가들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완전히 독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결국소련은 “한국이 공산화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 한국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마치 그들의 숨은 전략을 밝혀내듯 논평하였다(*Mundo*. núm. 399. 1947년 12월 28일: 602-604).

또한, 평양의 라디오방송이 북쪽에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기도 한다.

비록 한반도 남쪽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했지만, 결국 인민군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체가 될 것인바, 동 위원회는 소비에트들 손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쿠데타는 러시아가 관련되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한국의 지배를 러시아에 가져다 줄 것이다(*Mundo*. núm. 407. 48년 2월 22일: 261).

또한, 소련에 의해 국제협약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고발하는 일련의 기사들 속에도 한국에 대한 합의사항이 여러 차례 파기되었음을 소개하면서, 결국 소련의 국제정치가 그런 식으로 계속될 때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은 그들이 조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인 결론을 내렸다(*Mundo*. núm. 436. 48년 9월 12일: 46-49).

남한에 여순사건 등의 혼란이 발생하자 비교적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며 역시 소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잊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군이 반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극동지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토에서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듯이, 결국 우리는 다시 한 번 러시아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가 어느 시기에 가서 마음만 먹는다면, 제 3

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동북아시아에서 양대 세력인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Mundo. núm. 443. 48년 10월 31일: 304).



자료 4: 남, 북한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있음을 크게 보도한 스페인 언론(Mundo. 49년 5월 6일: 338-340)

인용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비록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짙은 내용이지만, 그들의 불길한 예측은 불과 2년이 채 안 돼 한반도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2. 한국의 또 다른 이미지, 미국 정책 실패의 희생자

앞서 분석한대로, 활발한 ‘스페니쉬 로비’를 통해 미국 내의 여론이 프랑

코정권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안보전략 담당 부서에서 스페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국무부의 정책이 이들과 일치하지 않아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페인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활용하여 미국의 경제-군사적 지원이 빠르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특히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앞선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서로 의견충돌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또는 백악관과 국회 사이에 나타난 의견 불일치는 판단기준의 부재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 결과로 남한이 소비에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서구에서 누가 한국의 운명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가? 소비에트 군대에서 지척거리에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럽인들은 삼천만 한국인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 그러나 놀라운 일은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에 속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불과 5년도 채 안된 과거에 스스로 떠맡은 일이었다.

[...] 그러나 미국인들은 남한을 포기한 채로 동양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제한된 목적을 지닌 움직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침투하여 지배할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에 대해 확고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은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보인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갖지 못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군사력의 침략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Mundo. núm. 461, 49년 5월 6일: 340)(필자 강조).

아마도 밑줄 친 부분처럼 명료하게 프랑코정권의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도 없을 것이다. 결국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는 반민주적 정권에 대한 미 국무부의 비판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반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무

렵 미 국무부는 프랑코정권에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언론은 한국 이외에 중국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장개석 정부를 민주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을 때, “장개석정부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장개석정부에게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사이, 러시아는 그 총통에게 단지 중국에서 승리할 것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의 민주주의 체험은 물론 미국의 권고로 시작된 것이지만, 원조는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다(*Mundo*, núm. 452, 49년 1월 2일: 6-8). 이 시기에 스페인 언론은 남한 및 대만이 처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의 정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프랑코정권이 한국과 아시아지역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40년대 후반, 스페인 외무성 내에 필리핀 및 극동지역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 파견되는 외교관과 언론사 특파원 수가 증가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Rodao, 1995: 239).

3. 남한에 대한 이념적 동질감의 표현

이 시기에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대해 이념적 동질감을 표현하거나 공산주의와 대치한 현실에 동정과 공감을 나타내는 기사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미국 유엔대표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자고 요청했다. 유엔의 정치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탈레스는 러시아가 한국에서 공산주의 테러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 모스크바정부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지역을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

만, 적어도 그리스, 터키, 그리고 더 중대한 이유로 독일과 한국 등
요충지에 있는 국가들은 지원을 해야만 한다(ABC. 48년 12월 8일).

그리고 스페인 언론들은 종종 한국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관리
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깊은 관심과 동정을 표하기도 한다.

태평양지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의 하나인 한국의 문제는 -왜냐하면 마셜장군이 언젠가 언급한대로
‘동아시아의 열쇠’이므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 한국을 남과 북 두 동강으로 나눈 38도선은 이제 하나의 철의
장막이다(Mundo. núm. 407. 48년 2월 22일: 261).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마셜장군은 이 문제를 미국의 7개의 목표 중 두 번째로 중요
하다고 정의하였다(Mundo. núm. 439. 48년 10월 3일: 170).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철군이 이루어지자, 남한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치의 혼란한 양상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하여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보여줬던 맹목과 예지의 부족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동지역에서 동구 베를린이라고 칭할 만하기 때문이
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면은 대륙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면은 남쪽
을 향해 마치 배의 뾰족한 선수(船首)처럼 일본열도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Mundo. núm. 451. 48년 12월
26일: 598-600).

또한, 김구의 암살을 비롯하여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나타난 반목을 우려
하면서, “지도자들이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북쪽의 러시아 추종 국
가는 나라 전체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쪽짜리 국가에서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개인적

인 싸움의 결과로 침략당하기 일보 직전에 까지 이르렀고, 어쩌면 러시아에 의해 무장된 북쪽 국가의 군사들에 의해 점령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 반면 유엔 한국위원단은 38선 최전선을 시찰하고 있는데, 그곳은 끊임없는 국경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보고서는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Mundo*, núm. 474, 49년 6월 5일: 360).

그리고 최후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공격을 잊지 않았는데, 한국의 상황은 이제 “미국의 패배주의라는 전체적인 체계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로 프랑코 정권이 직면해야 했던 국제적 고립의 원인과 배경을 검토하고, 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 언론이 전개했던 반공주의 선전과 그 속에 이용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이 다루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 스페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국제적 환경에 직면하였고,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대외행동을 취하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양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나라는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개최된 연합국 수뇌회담과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함께 어젠더로 다뤄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한국(남한)과 스페인 양국은 경제적, 군사적 취약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서는 강대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미국·소련 중심의 양극체제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공블럭으로 편입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한서 간의 유사성은 분명 프랑코정권의 선전에 좋은 자료가 되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드릴 때, 그것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기 원하는 부분만을 보려는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프랑코정권은 한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보고자 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알맞게 구조된 스펙트럼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중심적인 결론 이외에도 다음 몇 가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해방공간에 해당되는 시기에 한국과 스페인에 나타난 반공주의의 유사성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군국주의에 부역한 인물들이 해방 후 급속히 반공주의로 전환한 것과 세계대전 중 파시스트 국가들에 협조한 프랑코주의자들이 종전 후 강력한 반공주의를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대의명분과 안보·전략적 실리 사이에서 서로 모순된 입장을 보이게 되며, 결국 후자가 힘을 얻으면서 반공독재정권의 생존을 가져오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프랑코, 이승만 정권은 냉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외교 환경의 유사성과 이념적 동질성은 프랑코 정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1950년 양국 역사에 있어 최초로 외교관계 수립을 맺게 된다.

LA COREA MERIDIONAL ESTABLECE RELACIONES DIPLOMATICAS CON ESPAÑA

ESTA REPUBLICA FUE DECLARADA POR LA O. N. U. "EL GOBIERNO LEGITIMO DE TODA COREA"

En las 2 de la tarde de hoy, el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de España, anunció que se había establecido oficialmente la relación diplomática con la República de Corea, declarada por la O. N. U. "el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El anuncio fue hecho por el Sr. Martínez Saldaña, ministro de Asuntos Exteriores, en un momento de la sesión de la Cámara de Diputados, donde se estaba discutiendo la declaración de guerra a Corea.

El Sr. Martínez Saldaña declaró que la República de Corea había sido reconocida por España como el único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añadió que España había decidido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de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Alberca de los estudiantes coreanos desfilando ante la Embajada de los Estados Unidos durante la apoteosis coreanoamericana para liberar el resto del país.

Indicando, además, que se había establecido oficialmente la relación diplomática con la República de Corea, declarada por la O. N. U. "el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El Sr. Martínez Saldaña declaró que la República de Corea había sido reconocida por España como el único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añadió que España había decidido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de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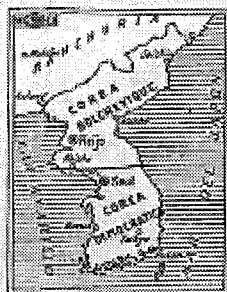
Una calle de Seúl, la capital de Corea. (Foto OITSA.)

El Sr. Martínez Saldaña declaró que la República de Corea había sido reconocida por España como el único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añadió que España había decidido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de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declaró que la República de Corea había sido reconocida por España como el único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añadió que España había decidido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de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declaró que la República de Corea había sido reconocida por España como el único gobierno legítimo de toda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El Sr. Martínez Saldaña añadió que España había decidido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de Corea, y que esta decisión se basaba en la resolución adoptada por la O. N. U. el 10 de octubre de 1948.

참고문헌

- 첸슨, 로이드. 1998.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 서울: 평민사.
- Armero, J. M. 1978. *La política exterior de Franco*. Barcelona: Planeta.
- Biesca, J. A. y Tuñón de Lara, M. 1994. *España bajo la dictadura franquista(1939-1975)*. Barcelona: Labor.
- Boulding, Kenneth E. 196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in James N. Rosenau(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422-431.
- Dunthorn, David J. 2000. *Britain and the Spanish Anti-Franco Opposition, 1940-1950*. New York: Palgrave.
- Gallo, M. 1973. *Spain Under Franco: A Hist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Goda, N. 1999. "Germany's conception of Spain's strategic importance, 1940-1941." in C. Leitz and D. J. Dunthorn(eds.). *Spai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1936-1959*. New York: Berghahn Books. 129-147.
- Holsti, Ole R.(1970), "The Operational Code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123-157.
- Leonart Anselem, J. M. y Castiella, F. M^a. 1978. *España y ONU, I (1945-1946). La «cuestión española»*. Madrid: CSIC.
- Leonart Anselem, J. M. 1983. *España y ONU, II (1947)*. Madrid: CSIC.
- Marquina Barrio, A. 1986. *España en la política de seguridad occidental 1939-1986*. Madrid: EME.
- Martínez Lillo, P. A. 2000. "La política exterior de España en el marco de la Guerra Fría: Del aislamiento limitado a la integración parcial en la sociedad internacional, 1945-1953." en J. Tusell, J. Avilés y R. Pardo (eds.). *La política exterior de España en el siglo XX*. Madrid: Biblioteca Nueva. 323-340.
- Montero Díaz, J. 1998. "El primer franquismo: triunfo y asentamiento del régimen(1939-1959)." en J. Paredes(coor.). *Historia contemporánea de España(siglo XX)*. Barcelona: Ariel. 663-685.
- Moradiellos, Enrique. 2001. "The Potsdam Conference and the Spanish Proble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0(1): 73-90.

- Queipo de Llano, G. G. 1994. "Franco Mussolini revisitados. La política exterior hispanoitaliana durante la guerra mundial." *Espacio, Tiempo Forma, Serie V(H.^a Contemporánea)*, 7: 17-33.
- Rodao, Florentino(1995), "Japón y Extremo Oriente en el marco de las relaciones hispano-norteamericanas, 1945-1953." *Revista Española del Pacífico*, 5: 233-241.
- Rosati, Jerel A, 1995. "A Cogni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 L. Neack, J. A. Hey, and P. J. Haney(eds.). *Foreign Policy Analysis: Continuity and Change in Its Second Generation*. Englewood Cliffs(Nueva Jersey): Prentice Hall. 49-70.
- Schafer, Mark. 1997. "Images and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18(4): 813-829.
- Suárez Fernández, Luis. 1984. *Francisco Franco y su tiempo*, t. III(Un caudillo para la neutralidad). Madrid: Fundación Nacional Francisco Franco.
- Tusell, Javier. 1984. *Franco y los católicos: la política interior española entre 1945 y 1957*. Madrid: Alianza Editorial.
- U. S., Department of State. 196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vol. II. Washington.
- Vicens Vives, J. 1972. *Tratado General de Geopolítica. El factor geográfico y el proceso histórico*. Barcelona: Editorial Vicens-Vives.
- Viñas, Ángel. 2003. *En las garras del Águila. Los pactos con Estados Unidos, de Francisco Franco a Felipe González(1945-1995)*. Barcelona: Crítica.

성명: 최해성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96-67 1층

E-mail: marchoe@naver.com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7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1일